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중·고 현장실무지원단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생활기록부 현장실무단 역량강화를 통해 학교 간 기재 편차를 해소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연계성을 위한 교사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25일 오후 그랜드힐스톤 11층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4명, 중·고 현장실무지원단 45명(중30명, 고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평가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 우수사례 및

컨설팅 경험 공유와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김진철 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특강 '4세대 나이스' ▲법령체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구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점검 실습 및 분임토의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학교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 연수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것"이라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연계를 기반으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은 지난 5일 홈경기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전주 시민축구단 홈 2연승 도전

내일 청주FC와 격돌... 강등권 탈출 사활

전주 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이 홈 2연승에 도전한다.

24일 전주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청주FC와 K3리그 스플릿B 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 5일 홈경기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주는 이날 승리로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전주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가 없지만 현재 3승 4무 10패로(승점 13점)으로 13위를 달리고 있어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주는 공수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공격에서는 김신과 195cm 장신 공격수 최인창이 선발 출전해 제공권 장악으로 공격에 무게를 줄 계획이다.

또 중원에서는 이동준과 문문수,

최육동 이기현이 공수를 조절하면서 상대 골문을 노린다.

수비에는 임진우와 김진준, 지병우, 신근식이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킬 계획이며, 골문은 조대영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감독은 "지난 광택FC와의 경기에서 어렵게 무승부를 했지만 팀 분위기는 좋다"면서 "우리 팀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만큼 파이팅과 패기 넘치는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감독은 "K3리그 강등권 탈출을 위해 매 경기 중요하다"면서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강등권을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경기를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농촌학생 교육기부 장성 월령초서 성황리 마쳐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교육기부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와 (주)오른랩(대표 남기욱)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게 적합한 컴퓨터 활용 교육이 성황리 마쳤다.

지난 9월 23일까지 총 6회 12차시로 진행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전남 장성 월령초등학교 5~6학년 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나노 메이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열렸다.

월령초 학생들은 코딩과 프로그래밍 등 핵심 이론을 배우고, 3D 프린팅 활동과 연계해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즐겁고 유익한 체험을 했다.

권성훈 월령초 교사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컴퓨터 사고력 개발에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교육기부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와 (주)오른랩(대표 남기욱)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게 적합한 컴퓨터 활용 교육이 성황리 마쳤다.

교사 통·번역지원단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사 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들 중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 통·번역지원단'을 구성,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전문적인 통·번역 인력풀 조성을 통해 도교육청의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사의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실용외국어교육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언어는 영어와 제2외국어로, 초등영어 10명·중등영어 10명·독일어 1명·스페인어 2명·일본어 5명·중국어 10명 등 총 50명으로 인력풀이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선수 밀착지원 효과 '특독'

전북스포츠과학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수 밀착지원 사업이 효과를 특독히 보고 있다.

센터는 선수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밀착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핸드볼과 바이애슬론 양궁, 육상(부처·원반), 펜싱, 플러 등 6개 종목 약 30명의 선수들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운동역학과,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의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이 투입, 효과도 서서히 입증되고 있다.

이리공과 육상 신유진(원번던지기)과 최하나(포환던지기)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자세 교정과 개별 맞춤형 트레이닝 등을 지원하면서 부상도 차츰 회복됐고, 올해 출전한 각종 대회에서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고공행진 하고 있다.

실제 신유진은 제20회 한국J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회화배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다. 최하나도 한국J18육상경기대회와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펜싱 예제의 경우 한쪽 근육을 주로 쓰는 편향성 종목이다보니 좌·우 근력의 밸런스 능력이 약화되면서 관절과 근육 부상이 많다.

이에 익산시청 남자 예제 펜싱팀에

게는 종목 특성에 맞는 보강훈련을 주기별로 지원해 선수들의 부상방지는 물론 체력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린 제58회 전국남녀종합펜싱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하기도 했다.

또 전북제일고 핸드볼팀에게는 빠른 움직임과 슛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성 트레이닝 지원과 상대 팀 경기분석을 병행 지원했다.

전북제일고는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핸드볼 명문고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영란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도자와 선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석권 교수, '소소풍경' 출판기념 사진전

최근 일상과 여행에서의 인상을 기록한 '정석권의 소소풍경' (한빛문화)을 출간했던 전북대학교 정석권 교수(영어영문학과)가 출판기념 사진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정 교수가 직접 국내 및 외국의 명소를 여행하며 담아낸 길 위의 모습과 인상 등이 70여 편의 글과 350여 장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전시에서는 책에서 볼 수 있던 국내 외의 명소와 특히 전주권의 전통시장, 풍납문, 한옥마을 등 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북대 공감터길에 위치한 갤러리 레드박스에서 열린다.

정 교수는 한겨레 웹진 사진마을(http://photoilhanil.com) 작가방에서도 '정석권의 소소풍경'을 연재해 왔다.

이 중 일부는 2017년 한겨레 사진마을 단채전으로 서울 충무로에 있는 '갤러리 꽃피다'에서 전시됐고, 일부는 2019년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프로그램인 사진 아카데미에서 작업한 사진들이다.

그는 현대 전북대 영문과에 재직 중이며, 사진과 글을 통해 주변의 일상이나 멀고 가까운 여행지의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익산시민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제8대 후반기 익산시의회
2020. 7. 2